

한국판 상태 성인 애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용인정신병원,¹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²

박 성 덕¹ · 이 우 경²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Sung Deok Park, MD¹ and Woo Kyeong Lee, PhD²

¹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

²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Adult attachment is a relatively stable disposition, rooted in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tterns. However, findings reported from recent research have suggested that levels of attachment anxiety, avoidance, and security are also affected by situational factors. The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SAAM) w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capturing temporary fluctuations in the sense of attachment security and insecur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K-SAAM).

Methods K-SAAM,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Relationship Questionnaire (RQ), Korean version of Positive Affec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K-PANAS),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 and Toronto Alexithymia Scale 20-K (TAS 20-K) were administered to 180 subjects in the community.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correlation analyses among related variables were conducted.

Results Scores on the K-SAAM demonstra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with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from .56 to .87.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three reliable subscales measuring state levels of attachment-related anxiety, avoidance, and security. Results of additional analyses demonstrated both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SAAM.

Conclusion The results reported here are highly supportive of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ty of the K-SAAM as a state measure of attachment. This new measure will allow clinicians to assess various temporary changes in attachment levels and to examine the efficacy of attachment-based psychotherapy. The K-SAAM has the potential to advance the field in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adult attachme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2;51:147-155

KEY WORDS Adult attachment · State · Trait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ceived August 22, 2011

Revised April 4, 2012

Accepted June 12, 2012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 Kyeong Lee,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142-700, Korea
Tel +82-2-944-5152
Fax +82-2-980-7200
E-mail wisemind96@iscu.ac.kr

서 론

애착이란 본래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였으나 최근 들어 전 생애 동안 계속되며 어떤 사람과도 형성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성인 애착은 부부나 연인 등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다.²⁾ 대상관계이론에 기초를 둔 Bowlby^{3,4)}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아는 양육자가 보살핌을 주는 반응적인 대상인지, 그리고 자신이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만한 존재인지와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 Bowlby 이후 Ainsworth 등⁵⁾은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안정형(secure type), 회피형(avoidant type),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 type)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양육자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에 대한 유아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영아들이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는 Bowlby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애착을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적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Hazen과 Shaver⁶⁾였다. Hazen과 Shaver는 아동기의 애착유형과 성인기의 애착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애착 유형이 퍼져있는 정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인이 연애관계에서 보이는 애착의 특성이 Ainsworth의 아동 애착 특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밝혔다.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성인 애착 유형 측정도구의 발달로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Hazen과 Shaver는 자신들의 연구

에서 성인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애착유형 척도(Attachment Style Measure)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나누어진 세 가지 범주 척도로서 세 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 가지만을 강제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Collins와 Read²⁾는 Hazen과 Shaver의 범주적 측정에 근거하여 성인기 애착유형 차원을 측정하는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의존(dependant), 친밀(close), 불안(anxiety)의 3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Bartholomew와 Horowitz⁷⁾는 성인 애착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네 범주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관계 유형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이하 RQ)를 개발하였다. 네 범주의 애착 유형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안정형(secure type), 자기부정-타인긍정의 몰두형(preoccupied type), 자기긍정-타인부정의 회피형(dismissing type), 자기부정-타인부정의 두려움형(fearful type) 애착으로 나뉜다. Brennan 등⁸⁾은 성인의 낭만적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이하 ECR)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아닌 면접법의 형식을 지닌 애착 척도로는 George 등⁹⁾이 개발한 성인 애착 면접법(Adult Attachment Interview)이 있는데, 이 척도는 애착유형을 자율형 또는 안정형(autonomous or secure type), 거부형(dismissing type), 몰입형(preoccupied type)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애착 척도들은 일반적인 애착 경향성을 나타내는 특질(trait-like)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이 인생의 주요한 사건과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변화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¹⁰⁾ 즉, 애착을 특질(trait)이 아닌 상태(state)로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에서 Kirkpatrick과 Hazan¹¹⁾은 관계 경험이 애착 유형의 안정성을 조절하며 특히 가까운 대상과의 이별은 애착 유형을 안정형에서 불안정형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상실 경험은 불안정 애착을 유발하는데, 지금까지의 특질 개념은 이러한 애착 불안정성과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특질 애착과 달리 상태 애착 또는 애착 변화는 이미 형성된 특정 애착 유형과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Baldwin 등¹²⁾도 인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착 유형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하

였다. 이와 같이 상태 애착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특정한 애착 유형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애착 유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동안 애착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상태 성인 애착 척도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이하 SAAM)이다. Gillath 등¹³⁾은 성인 애착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안정적인 특질 애착을 측정하는 ECR⁸⁾을 상태 문맥으로 변형한 다음 추가 문항을 삽입하여 347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안정, 불안, 회피의 3가지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애착 척도인 SAAM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세 가지의 요인 모델이 상태 애착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점을 밝혔으며, 검사-재검사 안정성을 측정하여 SAAM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애착 척도인 RQ,⁶⁾ ECR⁸⁾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Positive Affec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¹⁴⁾ 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이하 STAI)¹⁵⁾ 등과 상관 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 외 SAAM이 애착 작동 모델의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안전한 상황에 노출시킨 결과, 불안과 회피 점수는 낮아지고 안정 점수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애착을 특질이 아닌 상태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고 상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애착 척도의 개발은 아동에 대한 애착이론을 성인 애착으로 확대시켜 성인기의 사랑 또는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애착의 개념을 특질과 상태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커플, 즉 부부 치료의 효과를 매개하는 애착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태 애착 척도의 개발은 실제 임상 장면에서 연인 또는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문제를 초기에 평가하고 개념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특질보다는 상태로 개념화하여 Gillath 등¹³⁾이 개발한 SAAM을 우리말로 번안하고, 원칙도에서 나온 세 가지 요인 구조가 한국인의 표본에서도 그대로 반복 검증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이하 K-SAAM)의 내적 합치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K-SAAM이 상태 애착의 평가에 적합한 도구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정 표현 불능

증은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감정 표현 불능증이 어린 시절 어머니-유아 관계의 장애에서 비롯되며,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감정 표현 불능증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외에 감정 표현 불능증이 애착 유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 부적응과 불만족을 호소하는 부부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적용하기 위해 K-SAAM 하위 척도 중 결혼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부부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주로 지역사회 건강 가정지원센터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일부 참가자는 교회나 지역 사회 소모임을 통해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Y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측정도구

한국판 상태 성인 애착 척도(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이하 K-SAAM)

이 척도는 상태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Gillath 등¹³⁾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였으며, 영어와 우리말을 구사하는 미국의 심리학 박사가 역번역을 한 뒤 본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7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친밀 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이하 ECR-R)

이 척도는 Brennan 등⁸⁾이 개발한 ECR를 Fraley 등¹⁷⁾이 수정한 개정판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등¹⁸⁾이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을 7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ECR-R은 애착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치로 K-SAAM과의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관계유형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이하 RQ)

이 척도는 Bartholomew 등⁷⁾이 개발한 척도로서 Jang¹⁹⁾이 한국말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 애착 유형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작동 모델을 근거로 하여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척도이다.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의 애착 양식을 설명하는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여기는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RQ는 애착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치로 K-SAAM과의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판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Korean version of Positive Affec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이하 K-PANAS)

이 척도는 Watson 등¹⁴⁾이 개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²⁰⁾가 한국말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적 정동과 부정적 정동의 2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들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의 5점까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K-SAAM이 단순히 기분 변동을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순간 기분을 측정하는 K-PANAS를 사용하여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이 척도는 Beck 등²¹⁾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와 Song²²⁾이 번역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네 문장 중 자신에게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다.

상태 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I)

이 척도는 Spielberger 등¹⁵⁾이 개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

서는 Kim²³⁾이 변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한 한국판 STAI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상태를 4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대단히 그렇다’의 4점까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K-SAAM이 상태 불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개정판 부부 적응 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이하 R-DAS)

이 척도는 Spanier²⁴⁾가 개발한 DAS에서 Busby 등²⁵⁾이 문항을 선택하여 만든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Choi²⁶⁾가 한국말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6점의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상태 애착 변인 중에서 결혼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준거 타당도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토론토 감정 표현 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20-K, 이하 TAS-20K)

이전의 감정 표현 불능증과 관련된 몇몇 측정도구에서 문

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신뢰도와 타당도의 저하요인을 극소화하고 감정 표현 불능증의 구성 개념에 충실한 객관적 평가방법을 제시한다는 구상으로 캐나다 Toronto 대학의 Taylor 등²⁷⁾에 의해 1985년에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현재까지 타당도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척도이다. 1994년에 공상에 관련된 문항들을 삭제시킨 20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었다. TAS-20K는 세 가지 요인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교차-타당도가 증명되었고, 높은 신뢰성 및 내부 타당도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Lee 등²⁸⁾이 이를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 애착과 관련 감정 표현 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준거 타당도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입력 및 기술적 통계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였다. K-SAAM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으며, 3주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K-SAAM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결혼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학적 변인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96명(53.3%), 여자는 84명(46.7%)이었다. 결혼 기간은 8.75(± 7.71)년이었고, 교육 연수는 18.78(± 1.88)년이었다.

신뢰도 분석

내적 합치도

한국판 SAAM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α 계수는 0.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 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안정 애착 척도는 0.90이었고, 불안 애착 척도는 0.80이었고 회피 척도는 0.79였다. 문항과 해당 요인 간 상관도 모두 0.56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각 문항 별로 산출한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는 0.56~0.87로 나왔으며, 해당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가 크게 달라지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umber (%)
Sex	
Male	96 (53.3)
Female	84 (46.7)
Religion	
None	69 (38.3)
Christian	58 (32.2)
Catholic	26 (14.4)
Buddhism	21 (11.7)
Others	6 (3.4)
Job	
None	16 (8.9)
Clerical	42 (23.3)
Sales	30 (16.7)
Self-management	15 (8.3)
Professional	23 (12.8)
Others	54 (30)
	Mean (\pm SD)
Duration of marriage (years)	8.7 (7.7)
Age(years)	
Male	42.1 (7.2)
Female	39.8 (7.1)
Education (years)	14.88 (1.9)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Factor loading of the K-SAAM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9.	I'm afraid someone will want to get too close to me	0.868	0.162	-0.249
16.	The idea of being close to someone makes me nervous	0.820	0.198	-0.196
3.	I feel alone and yet don't feel like getting close to others	0.745	0.186	-0.475
21.	I have mixed feelings about being close to other people	0.732	0.201	-0.375
2.	I would be uncomfortable having a good friend or a relationship partner close to me	0.711	0.088	-0.397
10.	If someone tried to get close to me, I would try to keep my distance	0.625	-0.034	-0.144
12.	I really need to feel loved right now	0.126	0.938	-0.091
14.	I want to share my feelings with someone	0.004	0.787	-0.114
8.	I feel a strong need to be unconditionally loved right now	0.204	0.759	-0.225
1.	I wish someone would tell me they really love me	0.016	0.727	-0.075
17.	I want to talk with someone who cares for me about things that are worrying me	0.153	0.695	-0.298
19.	I really need someone's emotional support	0.320	0.657	-0.392
5.	I wish someone close could see me now	-0.009	0.602	-0.103
11.	I feel relaxed knowing that close others are there for me right now	-0.179	-0.030	0.780
13.	I feel like I have someone to rely on	-0.269	-0.227	0.751
4.	I feel loved	-0.272	-0.265	0.701
7.	I feel like others care about me	-0.185	-0.055	0.695
18.	I feel secure and close to other people	-0.409	-0.083	0.668
20.	I feel I can trust the people who are close to me	-0.315	-0.204	0.644
6.	If something went wrong right now I feel like I could depend on someone	-0.263	-0.140	0.357
	Eigen value	5.87	3.28	1.93
	% of total variance	27.96	15.61	9.21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axis factoring, Rotation method : 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 K-SAAM :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검사-재검사 신뢰도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척도 각 3개 요인에 대한 전체 점수의 검사-재검사 점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76($p < 0.05$)이었다. 안정 요인의 검사-재검사 점수 간의 상관 계수는 0.58($p < 0.05$), 불안 요인의 검사-재검사 상관 계수는 0.57($p < 0.05$), 회피 요인의 검사-재검사 점수 간의 상관 계수는 0.48($p < 0.05$)이었다.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21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비정상성에 덜 민감한 주축 요인 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을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 3개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Gillath 등¹³⁾의 연구에서 회피 행동에 해당되는 문항들이었고, 요인 2는 불안과 관련된 문항, 요인 3은 안정 애착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원척도와 같은 세 가지 요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문항 15번(“나는 누군가로

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이 원척도와 달리 회피 요인에 묶이지 않고 안정 요인에 포함되었으나 두 요인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0.30 이하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 결과

기존의 애착 척도 두 개를 사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는 상관을 구하였다(표 3). 특성 애착을 측정하는 ECR-R과의 상관 분석 결과, K-SAAM security는 ECR-R anxiety($r = -0.255$, $p < 0.05$) 및 ECR-R avoidance($r = -0.446$, $p < 0.011$), RQ-secure($r = 0.264$, $p < 0.05$), RQ-dismissive($r = -0.226$, $p < 0.05$)와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K-SAAM anxiety의 경우 ECR-R anxiety($r = 0.389$, $p < 0.01$), RQ preoccupied($r = 0.309$, $p < 0.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K-SAAM avoidance는 ECR-R-anxiety, ECR-R-avoidance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각각 순서대로, $r = 0.445$, $p < 0.01$; $r = -0.461$, $p < 0.01$), RQ-secure, RQ-dismissive와 유의미한 상관을($r = -0.333$, $p < 0.01$; $r = 0.495$, $p < 0.01$) 나타내었다.

K-SAAM와 다른 비-애착 양식 질문지 간에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4). K-SAAM

Table 3. Convergent discriminant validity

	K-SAAM security	K-SAAM anxiety	K-SAAM avoidance
ECR-R anxiety	-0.255*	0.389†	0.445†
ECR-R avoidance	-0.446†	-0.084	0.461†
RQ secure	0.264*	-0.067	-0.333†
RQ dismissive	-0.226*	0.150	0.485†
RQ preoccupied	-0.064	0.309†	0.144
RQ fearful	-0.092	-0.232*	0.098

* : $p < 0.05$, † : $p < 0.01$. ECR-R :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RQ : Relationship Questionnaire, K-SAAM :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과 K-PANAS로 측정된 상태 긍정적 정서 및 상태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 계수를 각각 구한 결과, K-SAAM security는 상태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0.397$, $p < 0.01$), 상태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0.518$, $p < 0.01$). K-SAAM anxiety와 K-SAAM avoidance는 상태 부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r=0.314$, $p < 0.01$; $r=0.445$, $p < 0.01$). K-SAAM 하위 척도들과 상태-불안 측정치인 STAI와 상관 분석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각각 $r=-0.518$, $p < 0.01$; $r=0.237$, $p < 0.05$; $r=0.354$, $p < 0.01$). K-SAAM 하위 척도들과 우울 측정치인 BDI와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예상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각각 $r=-0.460$, $p < 0.01$; $r=0.208$, $p < 0.05$; $r=0.201$, $p < 0.01$).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감정 표현 불능증 척도인 TAS-20K와 상태 성인 애착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K-SAAM security, K-SAAM anxiety, K-SAAM avoidance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각각 $r=-0.463$, $p < 0.01$; $r=0.204$, $p < 0.05$; $r=0.325$, $p < 0.01$). 반면 부부 적응 척도인 R-DAS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에서는 K-SAAM anxiety만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0.221$, $p < 0.05$).

또한 K-SAAM 차원이 결혼 적응을 예측해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R-DAS를 종속 변인으로 각 K-SAAM 하위 척도를 예측 변인으로 하여 동시에 투입하는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결과, K-SAAM anxiety만이 결혼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다($\beta=-0.190$).

고 찰

본 연구에서는 K-SAAM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해보았다. K-SAAM 요인 구조의 반복 검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항 15번의 요인 부하계수가 지

Table 4. K-SAAM Scale correlations with non-attachment state and mental health related variables

	K-SAAM security	K-SAAM anxiety	K-SAAM avoidance
K-PANAS-P (state)	0.397†	0.080	-0.068
K-PANAS-N (state)	-0.518†	0.314†	0.445†
STAI	-0.518†	0.237*	0.354†
BDI	-0.460†	0.208*	0.201*
TAS-20K	-0.463†	0.204*	0.325†
R-DAS	-0.026	-0.221*	0.087

* : $p < 0.05$, † : $p < 0.01$. K-PANAS-P :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ositive, K-PANAS-N :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Negative,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TAS : Toronto Alexithymia Scale 20-K, R-DAS : Revised-Dyadic Adjustment Scale, K-SAAM :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나치게 낮은 점을 제외하고는 K-SAAM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3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항 15번의 경우 원판에서는 회피 요인에 묶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정 요인에 해당되었고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는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문항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았다. 예컨대 15번 문항의 번역문(“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이 관계에 초연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문항을 “누가 날 사랑해도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번역한다면, 타인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 원판과 마찬가지로 회피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심리학자를 통해 역번역을 하여 원척도와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의 문항들 간의 동등성을 평가하였으므로 번역과 뉘앙스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인지 향후 다른 인구집단에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의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이는 원판 하위 척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더해, K-SAAM의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수들은 중간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범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SAAM이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판과 비슷한 심리 측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K-SAAM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태 측정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결과이다. 하지만 측정 당시의 상황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애착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하고, K-SAAM가 애착 상태의 변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변별할 수

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Korean vers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 애착 척도와 관련되거나 독립된 다른 구성개념들의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특성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인 한국판 ECR-R과 상관을 구한 결과, K-SAAM은 ECR-R 하위 척도, RQ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상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상태 불안, 우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특히 K-SAAM security 차원은 상태 긍정적인 정서 및 부정적인 정서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정 애착 상태를 유도하는 치료적 개입의 효과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K-SAAM은 감정 표현 불능, 결혼 적응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K-SAAM 하위 척도들과 TAS-20K 역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애착 유형과 감정 표현의 연결 고리를 확인해준 것으로 안정 애착에 비해 회피 및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 불화나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련성이 단순 상관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 변인들의 인과적 흐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K-SAAM 하위 척도들과 결혼 적응과의 관련성에서는 K-SAAM 불안만이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안정과 회피 하위 척도만이 관계의 질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드러난 원판 SAAM 연구¹⁶⁾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경우 불안 애착을 가질수록 부부 불화나 부부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부부 세미나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특성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인지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애착 문헌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K-SAAM은 상황적 따른 애착 차원들의 순간적인 변화와 변산성(variability)을 효과적으로 측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 애착 문헌에 따르면, 각 개인마다 마음속에 여러 개의 애착 작동 모델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르다.¹⁰⁾ 따라서 K-SAAM은 애착 작동 모델이 일생에 걸쳐 매우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새로운 개념과도 잘 맞는 도구이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K-SAAM은 좋은 내적 신뢰도,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와 중간 정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안고 있다. 먼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는 부부들과 대부분 30대, 40대의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령, 학력, 성별 차이를 비롯한 일반화 과정의 연구가 추후에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더하여, K-SAAM의 활용도와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령 집단을 비롯해서 우울장애나 부부 불화와 같은 임상 표본에게도 적용하여 교차 타당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ECR-R과 같이 특질 애착 모델을 기반으로 한 측정치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 상태 측정치 자료와 특질 측정치 자료 간에 차이를 보려면 장기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태 측정치와 특질 측정치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K-SAAM이 상태 애착 측정치로서 매우 신뢰가 높고 타당한 도구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K-SAAM과 같은 상태 측정치는 애착 문헌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측정치로 애착 작동 모델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이론적 모델과 잘 맞는 검사 도구이며, 일반화된 애착 유형과 순간적인 애착을 모두 측정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 시사점으로는 경험 표집 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해서 애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흐름을 살펴보고, 애착-상황-행동 간의 관련성, 즉 순간적인 상황적 특징이 상태 애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맥락에서 애착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특히 단기간에 애착 수준이 변화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측정치는 애착과 관련된 변화를 측정하려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애착 이론을 부부 불화에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29,30)} 향후 애착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대처 행동, 심리적 안녕감, 성인 애착의 질적 변화 등과 연결하여 연구한다면 변화무쌍한 성인 애착의 역동을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K-SAAM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K-SAAM의 요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을 통해 이 척도가 상태 성인 애착을 신

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K-SAAM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ECR-R 및 RQ은 비슷한 구성개념의 하위 척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상반된 구성 개념의 하위 척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SAAM의 하위 척도와 K-PANAS, BDI, STAI, TAS-20K 및 R-DAS 간의 유의한 상관은 애착이 개인의 정서 상태 및 감정 표현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약한 수준이지만 개인의 부부 적응 능력을 예측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 애착 관계의 질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애착 관련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 성인 애착 · 상태 · 특성 · 탐색적 요인분석.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Ditzen B, Schmidt S, Strauss B, Nater UM, Ehlert U, Heinrichs M. Adul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interact to reduce psychological but not cortisol responses to stress. *J Psychosom Res* 2008;64:479-486.
- 2) Collins NL, Read SJ.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 Pers Soc Psychol* 1990;58:644-663.
- 3)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 4)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1973.
- 5)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Wall S.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1978
- 6) Hazan C, Shaver P.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 Soc Psychol* 1987;52:511-524.
- 7) Bartholomew K, Horowitz L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 Pers Soc Psychol* 1991;61: 226-244.
- 8) Brennan KA, Clark CL, Shaver P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Simpson A, Roholes WA, editor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1998.
- 9) George C, Kaplan M, Main M.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3rd ed. Berkele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1996.
- 10) Cozzarelli C, Karafa JA, Collins NL, Tagler MJ.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s: associations with personal vulnerabilities, life event and global construals of self and others. *J Soc Clin Psychol* 2003;22:315-346.
- 11) Kirkpatrick LA, Hazan C.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994;1:123-142.
- 12) Baldwin MW, Keelan JPR, Fehr B, Enns V, Koh-Rangarajoo E.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 Pers Soc Psychol* 1996;71:94-109.
- 13) Gillath O, Hart J, Nofle EE, Stockdale G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tate adult attachment measure (SAAM). *J Res in Pers* 2009; 43:362-373.
- 14) Watson D, Clark LA,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 Pers Soc Psychol* 1988;54:1063-1070.
- 15) Spielberger C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1983.
- 16) Troisi A, D'Argenio A, Peracchio F, Petti P. Insecure attachment and alexithymia in young men with mood symptoms. *J Nerv Ment Dis* 2001;189:311-316.
- 17) Fraley RC, Waller NG, Brennan KA.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 Pers Soc Psychol* 2000;78:350-365.
- 18) Kim SH, Kim CD, Sherry A.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Seoul: Dissertation for doctoral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2004.
- 19) Jang HS. The comparison of a 3-group model with a 4-group model of adult attachment. *Korean J Dev Psychol* 1997;10:123-138.
- 20) Lee U.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mood level and its variability [dissertation]. Seoul: Chung Ang University;1994.
- 21) Beck A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1967.
- 22) Lee YH, Song JY.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 Clin Psychol* 1991;10:98-113.
- 23) Kim JT. The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and sociability. Seoul: Korea Univ;1978.
- 24) Spanier G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 Marriage Fam* 1976;38:15-28.
- 25) Busby DM, Crane DR, Larson JH, Christensen C.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 Marital Fam Ther* 1995;21:289-308.
- 26) Choi SI.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reversion of couple Dyadic Adjustment Scale. Go Hwang Non Jib, Kyung Hee Graduate School 2004;35:97-113.
- 27) Taylor GJ. Alexithymia: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 J Psychiatry* 1984;141:725-732.
- 28) Lee YH, Rim HD, Lee JY. Development &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TAS-20K).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6;35:888-899.
- 29) Hughes DA. Attachment-focused family therapy. New York: WW Norton;2007.
- 30) Johnson SM, Whiffen V.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s and Families. New York: Guilford Press;2003.

■ 부 록 ■

K-SAAM

아래의 진술은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진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과 어느 정도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1점부터 7점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점수에 표시하세요.

(지금 이순간)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좋은 친구나 친한 누군가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금 당장 친한 누군가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금 당장 뭔가 잘못된다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누군가가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올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누군가가 나와 친해지려고 한다면, 나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친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놓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지금 당장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꼭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금 당장 누군가와 내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나누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지금 당장 나는 누군가의 감정적인 지지가 정말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